투데이 칼럼

북핵 협상 30년

정 복 규
논설위원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와 1992년 한중 수교 등으로 체제 존립 위기를 느꼈다.

결국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섰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의 핵 능력은 미미했다. 협상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양보 끝에 나온 제네바 합의 체제도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핵을 없애기는커녕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 첫 번째 실패 요인은 '신뢰 부족'이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핵을 버리겠다는 김정은, 핵을 버리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 대표적이다.

서로를 적대시하며 미국은 최대의 제재로 압박했다. 북미 불신 70년의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 뒤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핵 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30여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 그리고 고의적 방치 등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이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치열했던 전략 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초기 단계의 북한 핵 활동은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다.

영변 핵 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를 거쳤다.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 위기도 있었다. 6자회담은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의 제3차 북핵 위기와 최근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모두 갈 길이 멀다.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다.

북한 외교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는 단 한 번도 해결되거나 해결의 문턱에 접근한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상황이 호전된 적이 없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을 뿐이었다.

북한이 핵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때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공군력과 핵무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런데다 참전 중인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안하무인 이었다.

북한은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절실했다. 그 뒤 1960년대 중소 갈등의 노골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편도 소련편도 아니라는 '주체사상'을 펼치게 했다.

북한 핵은 중국과 소련 두 나라 모두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이 처한 주변 상황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 하면서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에는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핵 연구소에 파견 했다. 이것이 북한 핵개발 시작이다. 1959년 9월 체결된 조소(朝蘇)원자력 협정은 북한 핵개발 정책의 공식적인 출범이다.

그 뒤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어 김일성대학과 김책공과대학에 핵 연구 부문을 창설하여 자체적으로 핵개발 인원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구호 외치는 리투아니아 반정부 시위대

리투아니아의 '자유를 위한 투쟁' 31주년을 맞은 1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밖 독립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1991년 1월 13일 소련군 특수부대가 탱크를 앞세워 국회와 방송국을 점령해 14명이 죽고 600여 명이 다친 '피의 일요일'을 기념한다.

프랑스 파업 교사 "교육부 장관은 거짓말쟁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교사들의 시위가 열려 한 교사가 열린 시위에서 "교육부 장관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쟁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랑스 교사들은 현 정부의 혼란스러운 코로나19 대처에 항의하고 교직원들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사 설

보이스피싱 중계기 단속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010으로 둔갑시키는 중계기까지 동원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원룸 건물로 경찰이 들어갔다. 방문을 열자 휴대폰 십여 대가 놓여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쓰는 일종의 '작업실'이었다.

이 휴대폰을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가 국내 전화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나는 신종 수법이다. 경찰 단속반은 신축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도구를 찾아냈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070 국번은 의심받기 때문에 평범한 휴대폰 번호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이다.

단속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사용 수법도 계속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특정한 장소에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장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몰래 숨겨놓고 한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이다.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이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상시 공조 체계를 이뤄서 범죄에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중계기 단속 전담팀을 꾸려 통신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기 바란다.

임성일 가수 법무사

요즘은 환갑을 넘기면 노년 세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꽃중년'이라고 많이 부른다. 환갑이 넘은 법무사이면서 가수로 인기를 모으는 임성일씨가 주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평생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법무사가 되었다. 하루는 노래 잘하는 후배가 찾아와"나 이번에 음반 내요. 노래 좋아하던데 음반 낼 생각 없어요?"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생뚱맞다는 생각에 시큰둥했다. 그러나 결국 노래에 대한 어릴 적 꿈 때문에 음반을 내게 됐다. 작곡가를 만나 2곡을 받았다. 그러나 가사, 음정, 박자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

매일 녹음기를 틀어 놓고 연습했다. 몇 달이 흘러 작곡가가 "자기 노래를 혼자 부르면 뭐하나.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러봐."라고 했다. 거절하면 얼굴 없는 가수가 될 뿐이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다. 수원 거북시장 축제였다. 사회자가"이번 가수는 '세월이 가면'의 임성일 가수입니다."라고 호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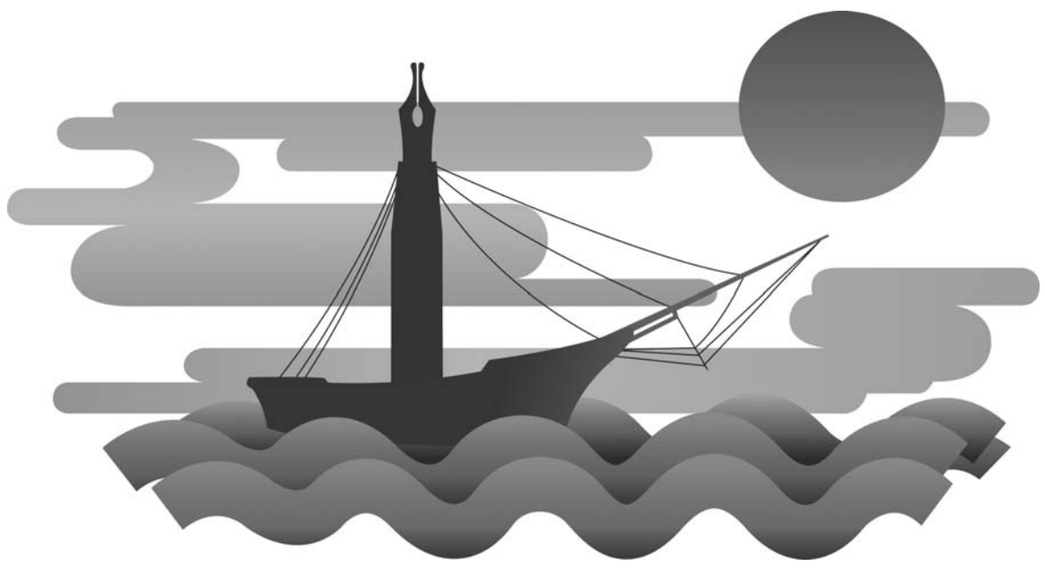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그러나 반주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래를 불러야 할 시점을 찾지 못했다. 박자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중하차할까 망설였으나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내려갈 수 없어 끝까지 계속 불렀다.

물론 앞 대목은 반주와 노래가 따로 놀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어 무사히 첫 무대를 마쳤다. 그 뒤 여기저기 공연과 방송 녹화를 찾아다녔다. 비록 무명가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것도 많았다.

그는 법무사와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미 2집 음반 '그리움'도 내고 수필가로 등단하여 수필집 '생명이 빛나는 순간'도 발간했다.

누가 나이를 물으면 그는 '꽃중년'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 노후를 젊게 살아보자는 의미다. 임성일 법무사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경기중앙회 소속으로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